

루존 라스 헤르만라스 크리안자
Luzon Las Hermanas Crianza 2019 Silver

19세기 필리핀 독립 전쟁 때 루존 지역에서 군의 관으로 일하던 의사가 전쟁 후 고향인 스페인으로 돌아와 만든 와인이다. 집을 떠난 사이 포도밭을 관리해준 여동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만든 브랜드이며, 각 와인의 레이블에 직접 그 얼굴을 그려넣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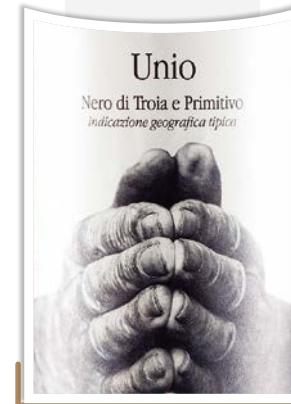
포르타 6 틴토 Porta 6 Tinto 2019 Gold

포르투갈 중부 레이리아에 자리한 비다갈 와이너리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 포르타 6를 생산하고 있다. 레이블에는 독일 일러스트 작가 하우케 바그트(Hauke Vagt)가 그린 포르투갈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와인을 표현했다. 수입사 레벳드매일



아드리아노 그라소 바르베라 디스티 수페리오레
Adriano Grasso Barbera d'Asti Superiore 2019 Gold

베에몬테 남쪽의 작은 마을 칼로소(Calosso)에 위치한 아드리아노 그라소는 6ha를 소유한 작은 와이너리다.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양조 과정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레이블이 인상적이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포데레 29 유니오
Podere 29 Unio 2019 Gold

포데레 29는 이탈리아 풀리아의 체르바로 강이 흐르는 포지아(Foggia) 중심부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유니오는 네로 디 트로이아와 프리미티보를 블렌딩한 와인으로, 손을 모은 그림을 레이블에 담아 두 토착 품종의 융합을 표현했다. 수입사 더뱅셀렉션



앤드류 피스 코알라 랜치 샤르도네
Andrew Pearce Koala Ranch Chardonnay 2017 Gold / 2016 Silver

앤드류 피스는 빅토리아 주의 북서쪽, 머레이 강 유역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이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코알라를 위해 코알라 랜치 판매액의 일부를 호주 코알라 보호 단체에 기부한다. 착한 가격뿐 아니라 귀여운 코알라 레이블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이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눈길을 사로잡는 역대 KWC 수상 와인 레이블

요즘 차별화된 레이블로 와인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들이 많다. 이러한 레이블을 가진 와인들은 선물용으로 제격이며, 와인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젊은 층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간다. 독특하고 감각적인 레이블로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역대 KWC 수상 와인을 소개한다. 글 조은지 사진 장영수

나파 밸리의 세인트헬레나에 위치한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는 고품질의 와인뿐 아니라 흥미를 자극하는 독특한 와인 레이블로도 유명하다. 이 와인의 레이블은 절도범의 상반신 사진이 찢겨진 상태로, 어두운 분위기와 함께 궁금증을 유발한다. 수입사 신동와인



보데가스 피놀드 레드 bat Bodegas Pinord Red Bat 2019 Silver

보데가스 피놀드가 스페인 프리오랏에서 만든 와인이다. 이들은 포도 재배기간 천적인 박쥐를 이용해 해충을 쫓아내는데, 와인의 이름과 레이블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담겨있다. 수입사 WS통상



더 프리즈너 와인 컴퍼니 더 스위치
The Prisoner Wine The Switch 2019 G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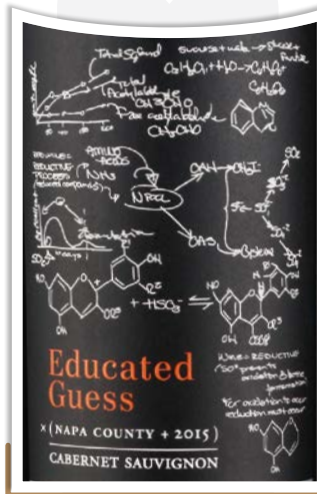
벨레노지 루디 오프이다 DOCG 로쏘
Velenosi Ludi Offida DOCG Rosso
2014 Gold / 2015 Silver / 2016 Bronze

벨레노지 비니는 이탈리아 마르케의 피체노(Piceno)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이 와인의 레이블에는 얼굴 없는 네 명의 사람들이 흥겹게 춤추는 모습이 담겨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몸에 가면 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사 더뱅셀렉션



레드헤즈 스튜디오 배럴 몽키즈 쉬라즈
Redheads Studio Barrel Monkeys Shiraz 2016 Gold

호주 쉬라즈의 풍미가 매력적인 와인으로, 2013년 <Wine Spectator> Top 100에서 41위를 기록했다. 장장을 입은 원숭이가 한 여성과 통화를 하고 있는 독특한 레이블이 눈에 띈다. 수입사 레드와인 앤 제이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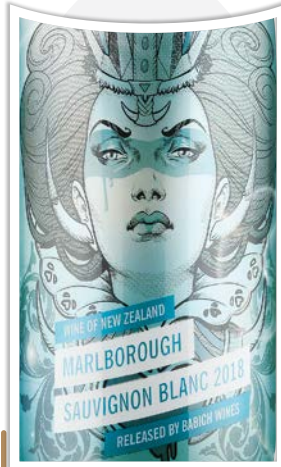


루츠 런 에듀케이티드 그래스 캐베르네 소비뇽
Roots Run Deep Educated Guess Cabernet Sauvignon
 2018 Silver

15년간 와인사업에 종사했던 마크 알브레흐트(Mark Albrecht)가 설립한 루츠 런 딥은 나파 밸리의 온트빌에 자리 잡고 있다. 포도가 와인으로 탄생하기까지의 발효와 화학 공식을 과학적, 예술적으로 표현한 레이블이 인상적이다. 수입사 LB

세구라 비우다스 리제르바 에레다드
Segura Viudas Reserva Heredad 2016 Bronze

세구라 비우다스는 페네데스 지역의 까바 생산자다. 2013년 <Wine & Spirits>에서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된 바 있다. 병 가운데 박힌 금속 재질의 문장과 바닥의 받침은 와인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준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배비치 와인즈 포비든 비네스 말보로 소비뇽 블랑
Babich Wines Forbidden Vines Marlborough Sauvignon Blanc 2019 Silver

배비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말보로 지역의 와이너리다. 포도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바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뉴질랜드 바람의 여신을 레이블에 담았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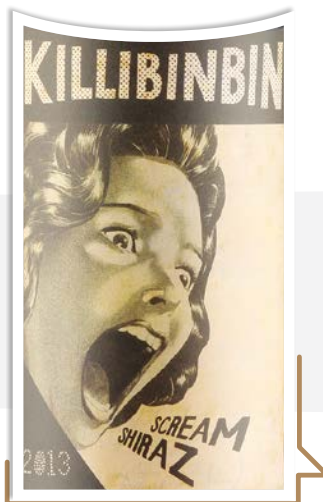


바르베라 달바 마에스트랄레 비노룸
Barbera d'Alba Maestrale Vinorum 2016 Gold

살바노는 1930년 이탈리아 쿠네오의 디아노 달바 지역에서 시작된 와이너리다. 와인에는 이탈리아 국기 색의 실과 함께 수작업한 실링 왁스가 부착되어 있어 독특한 첫인상을 남긴다. 수입사 레벤드매일

킬리빙빙 스크림
Killibinbin Scream 2014, 2017 Gold / 2015, 2019 Sil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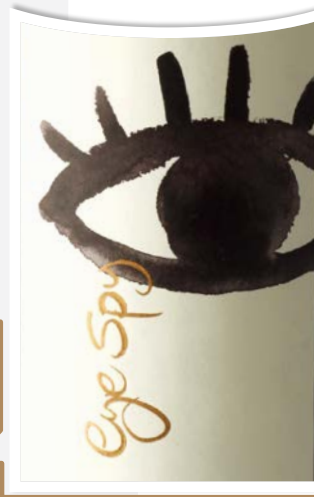
호주 메탈라 빈야드를 대표하는 브랜드 킬리빙빙은 스토리가 연상되는 와인 레이블로 재미를 준다. 킬리빙빙의 스크림은 이름에 걸맞게 비명을 지르는 여성의 모습을 담아 와인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수입사 유와인



찰스 스미스 와인즈 쿵푸 걸 리슬링
Charles Smith Wines Kung Fu Girl Riesling 2019 Silver

찰스 스미스 와인즈는 워싱턴 월라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찰스 스미스의 와인 브랜드다. 이 와인은 이름과 동일하게 레이블에도 쿵푸 걸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레이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입사 신동와인

아라 린지 와인즈는 호주 아라 밸리에서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생산한다. 아이 스파이는 눈을 강조한 심플한 디자인의 레이블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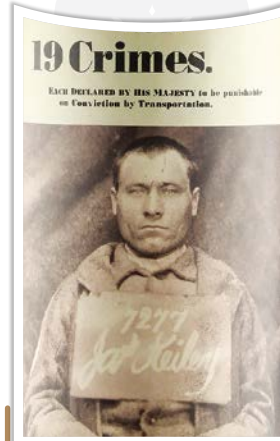


아이 스파이 샤르도네
Eye Spy Chardonnay 2012 Bronze



파이 레드 Pi Red 2013 Bronze

스페인 갈라따유드(Calatayud) 지역에 위치한 보데가스 랑가는 15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와이너리다. 파이 와인은 이름뿐 아니라 레이블에도 원주율이 담겨있다.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여 연인에게 선물하기도 좋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19 크라이스 슈라즈
19 Crimes Shiraz 2019 Silver

17세기 영국에서는 절도, 화폐위조 등 19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호주로 강제 이주 시켰다. 당시 강제 이주 형에 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만든 와인 브랜드가 19 크라이스이며, 와인 레이블에는 실제 범죄자의 모습을 담았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체레토 몽소르도 랑게 로쏘 DOC
Ceretto Monsordo Langhe Rosso DOC 2014 Gold

체레토는 알프스의 자연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탈리아 알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좋은 와인에는 그에 걸맞은 아름다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병 디자인과 레이블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큐빅을 박아 놓은 듯한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수입사 까브드뱅